

<최근 사례들을 통해 본 한국 노동운동 재활성화 방안> 토론문3

금속노조 경기지부 조건준

냉각점과 비등점 사이에서

노동운동의 새로운 시도 사례들 속에서 새로운 요소들을 발견하기 위한 노동사회연구소의 노력에 참으로 기쁘다. 단지 상투적 인사를 넘어 지금의 시기야 말로 이런 노력이 너무나 소중한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노동운동은 여전히 냉각점을 향해 가고 있을까? 위기설들이 나오고 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본다면 냉각점을 향해 가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애뜻한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비등점의 경계에 다다르고 있다.

흐린 프레임

새로운 시도를 바라보는 틀은 선명한 창인가? 아예 과거의 프레임으로 새로운 시도를 하거나 바라보는 경우도 있다. 열심히 바라보려 하지만 여전히 과거의 잔상들이 붙어 있어 닦이지 않은 창으로 새로운 시도를 바라보고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 새로운 시도를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뿌연 불명확성 때문에 새로운 시도가 번번히 좌초되고 혹은 결과를 보아도 일그러진 경우도 여전히 있다. 오늘 발표문을 제대로 꼼꼼히 살피지 못해 거론되는 사례들에 대해 간략한 인상적 평가를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토론 자리로 남긴다.

장례식장과 신생아실이 함께한 복합건물

한진중공업과 희망버스운동을 경험하면서 내 평가는 이렇다. 한진중공업에서 발생한 문제는 전형적인 고용게임들이 펼쳐지는 연속된 과거들의 현재 반복이었다. 쌍차에서 ‘산자’와 ‘죽은자’의 갈등은 한진에서 ‘총 맞은자’와 ‘총 맞지 않는자’로 반복되었다. 노조는 결코 이 생존게임의 룰을 벗어나지 못했고 대응 또한 그랬고 그래서 열사는 반복적으로 나왔다. 그래서 나는 한진은 노동운동의 장례식장과 같았다고 평가한다. 여기에 희망버스운동이라는 새로운 시도가 덧붙여졌다. 노조운동안에서 발생한 운동이라고 할 수 만 없는 희망버스운동은 시작, 조직되는 방식, 참여자들의 구성, 참여한 사람들의 다양한 퍼포먼스 등등 노조나 기존 노동운동의 그것과는 달랐다. 그래서 새로운 신생아의 탄생같았다.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장례식장과 신생아실을 함께 포함한 복합건물 같았다.

고독한 인큐베이터

희망연대노조의 시도는 사뭇 다른 출발점이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편으로는 일반노조운동의 모습을 닮은 것 같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시작하는 사람들의 사회운동노조에 대한 과감한 시도이기도 했다. 한편에서는 사회운동노조를 질과 내용으로 파악하는 사람들이 기존의 민주노조와 산별노조안에서 사회운동노조의 요소들을 만들려는 시도와 달리 별도의 실험, 별도의 인큐베이터를 만든 것처럼 희망연대 노조는 그렇게 성장하고 조직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기존 노조운동이나 사회운동의 모든 요소들로부터 보호받는 따듯한 인큐베이터는 아닌 측면이 있다. 새로운 시도란, 늘 그렇듯이.

강한 독 품은 괄목할 성과

학교비정규직이 대규모로 조직되는 사례를 보면서 놀라우면서 동시에 곤혹스러웠다. 진보교육감을 활용하든 아니면 밑바닥에서부터 조직을 하는 것이든, 외부의 정치적 유리함을 활용해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심이 있든 아니면 밑바닥에서 짠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사회운동적 확산력이 부족하든, 지역에서 학교비정규직과 연대는 늘 반쪽이다. 조합원들이 늘어나는 괄목할 만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연대하기 어렵다. 하나가 되어야 할 노조가 반쪽으로 툭 갈라졌기 때문이다. 민주와 어용같은 대립구도가 아니다. 정치적 영향력이 강력하게 작동하는 노조란, 노조의 정체성이 극강에 이른 발전인가, 아니면 고질적 정파싸움으로 인한 서글픈 분단인가.

침몰하는 여객선 안의 애뜻한 구명활동

발암물질관련 운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구체적인 사례들에 대한 분석을 좀 더 듣고 판단하는 것이 현명하다 싶을 정도로 내용을 검토하지 못했다. 다만 금속노조에서도 했던 것이고 가끔 접촉한 경험에 기초해서 볼 때에, 세월호 참사가 드러낸 드러난 우리사회의 엄청난 문제를 운동적으로 의미있게 밀고 가는 것인지를 평가하기 좀 역부족인 듯 싶다.

정말 절실한 3세대 노조 또는 노동운동

어용 또는 무노조시대, 민주노동운동의 시대를 지나 제 3세대 노조운동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대안노조가 필요하지만 그 상이 아직은 분명치 않고 사례도 아직은 풍족하지 않기에 우리는 비등점의 언저리에 와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외환위기 이후에 시작된 고용게임은 무한 반복되고 있다. 죄수의 딜레마처럼, 고용게임에 싸인 노조는 “늘 너죽고 나살자”, 혹은 “함께 죽자”는 선택을 하곤 한다. “함께

살자”는 외침은 그냥 추상화된 구호일 뿐 전략전술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너 살고 나 죽자”는 놀라운 선택들도 가끔은 있지만 보상받지 못하곤 한다. 그래서 열사의 희생은 위대하기보다 슬프다.

주권력 및 규율권력과 달리, 개인들의 신체에 직접폭력을 가하지 않고서도 신체에 밀착하여 그것을 특정한 질서에 따라 움직이게끔 감시하고 강제하는 권력이 아니라, 특정한 경제적 게임의 법칙을 도입하고 그 패자들을 죽도록 방치하는, 그래서 비가시적이고 방치한 죽음들이 자연스런 결과처럼 보여 더 자연스런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신자유주의 안전권력(최원, 진보평론 가을호)이라는 분석 앞에서는 끔직한 ‘잔혹권력’을 발견한다. 그러나 이 권력을 이겨낼 대안사회운동이 없다는 점에서 침몰하는 세월호안의 생명들을 구출하지 못하는 무기력감 이상의 무능력을 느낀다. ‘전능한 자의 무능력’ 앞에서 대통령 퇴진을 악써 외치는 소리를 들으면 더욱 슬퍼진다.

건투를!

오늘 자리에선 사례로 올라오진 않은 76년 무노조 삼성에 맞선 삼성전자서비스 투쟁에서도 비등점을 경험했다. 금속스럽고 전통적인 전투적인 민주노조의 프레임처럼 상경파업농성과 열사의 죽음이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에선 썬스타일(썬=SSEN=Sam Sung Engineer)을 고민하면서 삼바운동(삼성바꾸기운동)과 춤노래, 이미지 타격을 위한 소비자운동이 교차했다. 전통적 방식이 때론 중요하지만 때론 발목을 잡고, 새로운 시도가 때론 위력을 발휘하지만 아직 확고하지 않은, 그래서 삼바와 열사, 즐거운 투쟁과 비분강개한 외침이 섞여있는, 물도 수증기도 아직은 아닌 상태를 통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도를 위한 모든 이들에 대한 무한한 지지를 보내며 또한 연구소의 그런 사례들을 정리하고 공유하려는 시도에 감사한다.